



상명대 동문회보

The Sangmyung University Alumni News

총동문회 지표

합
취
사
화
진
보

<http://www.smalumni.or.kr>



상명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총동문회장 서명원입니다.

이번 총동문회장으로 재선출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문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상명 동문 여러분, 올 해는 임진년 용의 해 만큼, 비상하는 용의 기운을 받아서 동문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항상 생동감이 넘치고 활력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총동문회는 최근 들어 대학과 동문회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몇 년 동안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고, 동문 및 모교 행사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총동문회 사업의 내실화를 꾀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점진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교육과학 기술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에 있어 선정 과정의 부실함과 부당함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모교의 명성을 회복하고자 모교와 재학생 동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동문 여러분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

변화를 뜻하는 영어 단어 change에서 알파벳 하나만 바꾸면 chance, 즉 기회가 됩니다. 우리 상명 총동문회는 지금의 위기와 변화를 더 큰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동문 여러분과 모교의 발전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동문회장 서명원

신는차례

제33호 상명대학교 동문회보

제1면 화보 | 회장인사말

제2면 총동문회 소식

제3면 총동문회 소식
과/지부동문회 소식

제4면 과/지부동문회 소식

제5면 동문동정

제6면 인터뷰

제7면 모교소식

제8면 화보

제33호

발행인 : 서명원

편집주간 : 주소형

발행일 : 2012년 3월 1일

발행처 : 상명대학교 총동문회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 7번지

TEL : 02-2287-5250

FAX : 02-395-5203

편집·제작 : 디·모브(02-3443-6280)

축사



상명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대 충동문화회에서 회장을 맡았던 황정주입니다. 이렇게 동문회보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로 반갑고 기쁩니다.

20대 충동문화회장직을 수행하던 임기 동안에 우리 충동문화회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종희 전임회장을 비롯한 여러 선배님들이 닦아놓은 기틀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여기에 동문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지난 14년간 매년 2회씩 발행하던 동문회보 발행은 잠시 중단되었고, 이에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이번 33호 동문회보를 통한 회보 발행사업 재개에 누구보다 큰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동문 여러분! 흔히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충동문화회는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들을 통해 더욱 굳건하고 건실한 충동문화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 동문 여러분의 조금 더 따뜻한, 조금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충동문화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임회장 황정주

2008~2010년 소식

2007 정기총회

일시: 2007.10.19. 오후 7시

장소: 부암동 하림각

의결사항: 제 20대 충동문화회장 황정주(체교, 76) 동문 선출

2007 임시이사회

일시: 2007.12.3. 오후 7시

장소: 청담동 리베라호텔 헤라홀

의결사항: *동문회사무국 이전
*회칙 개정(①임원 연임 2회로 제한, ②모교 명예실추 동문 제명 조치)

2008 사무국 이전



일시: 2008.3.12

장소: 서초동 1355-17 서초디오빌 1107

2009 정기총회

일시: 2010.1.30. 오후 5시

장소: 소공동 롯데호텔 펄스위트룸
의결사항: 제 21대 충동문화회장 서명원(불교, 78)동문 선출

2010 명예회장 위촉식



일시: 2010.2.26. 오후 6시

장소: 신영동 자하문

의결사항: 명예회장으로 14~19대 충동문화회장 역임한 김종희(체교, 74)동문 위촉

2010 동문회보 합본호 발간식



일시: 2010.4.10. 오전 11시

장소: 소공동 롯데호텔 아스토룸
충동문화회의 지난 역사를 담은 제1호~32호 동문회보를 한권의 책으로 엮어 발간

년 결산보고 및 2011년 사업계획안과 2011년 예산안이 통과되었으며, 안건토의 후에는 저녁만찬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다짐으로 2011년을 맞이하는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고 배상명 박사 제 25주기 추도식 참석



지난 2월 16일 11시 천마산 묘소에서 상명학원 설립자이신 배상명 박사의 제 25주기 추도식이 거행되었으며, 서명원 충동문화회장이 참석하였다.

학군단 공로패 수여



지난 2월 16일 14시 서울캠퍼스 아트센터 계당홀에서 거행된 학군단 임관식에서 모범생에게 주어지는 특별 시상으로 전규식(경제, 07), 송승환(토목, 07) 학생에게 충동문화회장의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퇴임교수 감사패 전달



양윤국 교수 박남희 교수 신운섭 교수 김태현 교수
충동문화회에서는 지난 2월과 8월에 영

어교육과 양윤국 교수, 일어교육과 박나미 교수, 독일어문학과 신운섭 교수, 성악과 김태현 교수의 정년퇴임을 맞아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기리며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충동문화회장상 수여



2010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2월 23일에 거행됐다. 이번 제43회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자하교정에서는 총부학생회장을 역임한 영어교육과 김서연 학생에게, 안서교정에서는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건강관리전공 황규연 학생과 총부학생회장을 역임한 중국어문학과 안보름 학생에게 각각 충동문화회장상이 수여되었다.

재단법인 상명동우장학회 정기장학금 수여



김예솔 학생 김은비 학생 김진형 학생 강수정 학생



박상준 학생 이민영 학생 이휘영 학생 정상은 학생



장보경 학생 정해일 학생 주혜정 학생 박진용 학생

상명동우장학회에서는 지난 3월과 10월, 2011학년도 제 1학기과 2학기 장학금을 두 차례 수여하였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재학생 동문들은 김예솔(컴퓨터과학, 3학년), 이휘영(시각디자인, 2학년), 강수정(소비자주거, 1학년), 정상은(그린생명과학, 3학년), 김진형(디지털미디어, 3학년), 김은비(영어교육, 4학년), 주혜정(의류, 4학년), 박진용(패션디자인, 2학년), 박상준(패션디자인, 4학년), 장보경(통번역, 4학년), 이민영(스포츠산업, 4학년), 정해일(영화영상, 4학년) 학생으로 총 12명이다.

대동제 및 자하가요제 후원



충동문화회에서는 지난 5월과 10월, 서울과 천안 두 캠퍼스의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대동제와 교육방송국에서 주최하는 자하가요제를 후원하였다.

2011년 소식

2010 정기이사회 개최

2010 정기이사회가 지난 2011년 1월 20일 오후 6시 소공동 롯데호텔 가네트 룸에서 개최되었다. 각 학과 동문회 회장, 부회장과 직능 및 지역 회장

들이 참석한 이번 이사회에서는 2010



총동문회 임원회의 개최

지난 8월 12일 인사동 황후에서 21대 총동문회 임원진이 임원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올 하반기 총동문회 사업에 관해 각 부서별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오찬을 통해 21대 총동문회가 화합하는 시간을 함께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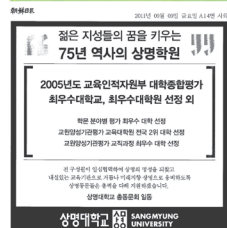
총동문회 긴급이사회 개최



지난 9월 5일 교과부가 모교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발표함에 따라 9월 7일, 서울캠퍼스 밀레니엄관 202호에서 긴급이사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참석한 총동문회 이사들은 재학생 동문들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및 갖가지 지원 방안을 강구 및 결의하고, 다음날 오전 서울과 천안 캠퍼스 재학생 동문들에게 배포할 전단지 8일 새벽까지 제작하는 등 긴박한 시간을 보냈다. 다음날인 8일 오전, 총동문회 임원진들은 양 캠퍼스에서 등교하는 재학생 동문들에게 반박자료가 실린 전단지 10,000여장을 배포하였고, 4대 일간지에 모교의 졸업생과 재학생을 지원한

다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주요 일간지에 모교광고 및 기사 게재



총동문회에서 모교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9월 9일자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였으며, 서명원 총동문회장은 나눔뉴스, 동아일보 등의 인터뷰를 통해 교과부 발표의 부당함을 호소하였다. 또한 9월 16일자 동일 주요 일간지 1면에 한차례 더 모교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재직동문 교수회와 간담회 진행



지난 9월 21일과 22일, 서울과 천안 캠퍼스의 재직동문 교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과부 선정으로 인해 예상되

는 피해와 극복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준방 이사장과 강태범 신임총장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장학기금 조성 및 취업률 증가 방안을 내놓고 구체적 실행안을 모색하였다. 재직동문교수회는 이날 결의한 대로 10월 5일 '제자사랑 후배사랑 장학금' 1억원을 모아 대학에 기탁하였다.

총동문회 장학기금 1억원 모교 기탁



지난 10월 10일, 서명원 총동문회장이 서울캠퍼스 총장실에서 강태범 총장에게 총동문회장학금 1억원을 직접 전달하였다. 이 장학금은 서울캠퍼스와 천안캠퍼스의 재학생 동문 중 100명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되었고, 지난 11월 21일 총동문회장이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수여식 또한 거행되었다. 장학기금 조성 사업과 재학생과 동문 간 취업연계프로그램은 2012년 인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입회 기념품 배포

지난 11월 15일, 서울과 천안 두 캠퍼스에서 졸업예정자인 4학년 재학생 동문에게 입회 기념품으로 동문수첩을 배포하였다. 양 캠퍼스의 졸업예정자

는 서울 1463명, 천안 1457명으로 졸업예정인 재학생 동문들에게 약 3000부가, 총동문회 이사들에게 약 400부가 배포되었다.

2011 정기총회 개최



지난 11월 24일, 소공동 롯데호텔 가네트룸에서 2011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각 학과 동문회 회장, 부회장과 직능 및 지역 회장들이 참석하여 2011년 결산보고 및 2012년 사업계획안과 2012년 예산안이 통과되었으며, 제 22대 총동문회장으로 서명원(불교, 78) 동문이 재선출 되어 22대 임원단을 다시 한 번 이끌게 되었다.

총동문회 사무국 이전

올 해 첫 동문회 사업으로 지난 1월 4일에 총동문회 사무국을 이전하였다. 이는 동우장학회 이사회에서 서초동 사무국을 매매하여 기본재산을 늘리고 장학기금을 확충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서울캠퍼스 내에 동문회관으로 이용하던 건물로 4년 만에 재이전 한 것이다.

과/지부 동문회 소식

성악과 제2회 동문음악회

성악과 동문회(회장 김순미)는 지난 5월 3일 오후 7시 30분 모교 상명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 2회 동문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연극학과 동문체육대회 개최



연극학과 동문회(회장 성건제)는 지난 5월 5일 천안캠퍼스 교정에서 체육대회를 열고 선후배들이 함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연극학과의 동문체육대회는 매년 5월 5일에 개최되며, 이 행사를 통해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피아노과 제1회 동문회

피아노과 동문회(회장 박명숙)는 지난 6월 15일 모교 콘서트홀에서 선후배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1회 피아노과 동문회를 개최하였다.

만화와 동문회 자선판매 및 기부금 모금행사



만화와 동문회(회장 조아진)는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와 함께 지난 7월 23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청계광장에서 자선판매 및 기부금 모금행사를 개최하였다. 만화와 동문들은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 기타 공연, 자선판매활동 및 기부금 모금을 벌였으며 이 행사를 통한 수익금 전체는 사랑의 열매단체에 기부하였다.

미술과 대한민국 예술단체 페스티벌 '상명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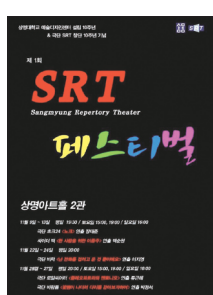
미술과 동문회(회장 고혜숙)는 8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대한민국 예술단체 페스티벌 '상명전'을 개최하였다.

관현악과 동문음악회 개최

관현악과 동문회(회장 정순석)는 지난 11월 24일 오후 7시 상명대 콘서트홀

에서 관현악과 동문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제1회 SRT페스티벌 개최



연극학과 교수진 및 동문, 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 주축으로 이루어진 극단 'SRT'에서는 연극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극단 로얄씨어터(상임 연출: 미교, 76, 류근혜), 극단 시공(대표: 연극, 98, 백순원), 극단 비락(대표: 연극, 99, 이지영)을 초청하여 11월 8일부터 27일까지 상명아트홀 2관에서 '제 1회 대학로 연극 축제 SRT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공연작이었던 <클레오파트라와 앤토니오>, <한 사람을 위한 이중주>, <난 전화를 걸려고 온 것 뿐이에요> 세 편 모두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제 17회 섬유디자인전공 동문전

섬유디자인전공 동문회(회장 이재경)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두산아트스퀘어(서울시 강남구 도



곡동 174-2)에서 동문전을 개최하였다. 17회를 맞고 있는 이 행사는 선후배들의 끈끈한

2011 상명사진 동문의 밤 'VEOPLE PARTY'개최

사진영상미디어전공 동문회(회장 정현실)는 지난 12월 3일 신촌 '619Rib'에서 2011 상명사진 동문의 밤 행사로 'VEOPLE PARTY'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상명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전공 출신 졸업생과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들이 참석하였으며, 2011년의 마지막을 함께 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산업디자인전공 동문회 창설

산업디자인전공에서 과동문회(회장 류중식)를 창설하였다. 총동문회의 지원과 함께 올해 1월 28일 오후 5시 마포의 '살롱드 마랑'에서 창설식을 가졌으며, 03학번인 류중식 동문이 1대 회장직을 맡았다.

대신증권 회장 이어룡 동문 장학기금 3억 기부



대신증권 회장 이어룡(체교, 72) 동문이 모교 상명아트센터에서 지난 12월 28일 대신증권 장학금 전달식 및 대신홀 헌관식에 참석했다. 이준방 상명학원 이사장과 강태범 총장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 이 동문은 장학기금 3억 원을 후배들을 위해 직접 전달하였다. 한편 이 동문은 2010년 12월에도 후배들을 격려하며 대신송 춘문화재단으로부터 장학금 1억 원을 모교에 기탁한 바 있다.



고혜숙 동문 2011년 올해의 미술상 수상



고혜숙(미교, 74) 동문은 아트저널 아티스트가 선정한 2011년 '올해의 미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인사동 이형아트센터에서 개최한 '올해의 미술상 수상전'에 참가하였다.

류근혜 동문 '2인극 페스티벌 연출상' 수상



중견 연출가이자 모교 연극학과 교수인 류근혜(미교, 76) 동문이 지난 11월 <클레오파트라와 앤토니오> (11.16~20, 설치극장 정미소)로 '2인극 페스티벌 연출상'을 수상하였다. 류 동문은 지난 5월 서울연극제 공식 참가작 <why not> (5.11~14,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의 연출을 맡아 호평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10월부터는 <나도 아내가 있다> (2011.10.7~2012.1.1, PMC 소극장)를 통해 대학로의 관객과 소통하기도 하였다.

정순석 동문 플루트 독주회 개최



정순석(관현악, 81) 동문이 9월 5일 금호아트홀에서 플루트 독주회를 개최하였다.

김보경, 이진아, 오은정 동문 '상명 Vocabulary' 발간

영어교육과 김보경(82), 이진아(88), 오은정(91)동문이 '상명 Vocabulary' 책을 발간하였다. 김보경 동문은 모교



영어영문학부의, 이진아·오은정 동문은 영어교육과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이진아·오은정 동문은 각각 2008년과 2010년에 마르퀴스 후즈 후 출판(Marquis Who's Who Publications)에서 출간하는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who's who에 이름을 올렸다. 오은정 동문은 2012년에도 'Who's Who in the World 2012' (29th edition)에 등재가 결정되는 등 두 차례나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영주, 박경진 동문 국회도서관 '발전공로상 우수직원상, 친절직원상' 수상
국회도서관에 재직하고 있는 이영주(문정, 82), 박경진(문정, 01) 동문은 지난 1월 '국회도서관 발전공로상 우수직원상'과 '국회도서관 발전공로상 친절직원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현재 국회도서관에는 모교 문헌정보학과 출신 동문들이 10여명 재직하고 있다.

조은호 동문 작품집 발간



조은호(공예, 83) 동문이 20년 동안 그려온 작품들을 모아 포슬린 페인팅 작품집 'Uno's Porcelain ART Book'을 출간하였다. 조 동문은 일본과 한국, 네덜란드에서 수차례 개인전과 그룹전을 개최하였으며, 2008년 이탈리아 코모 컨벤션에서 입상한 바 있다. 현재는 네덜란드 포슬린 페인팅 교실 "아

트 오브제"를 운영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단기 세미나를 출강하고 있다.

김지현 동문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여자주역상' 수상



모교 성악과 교수인 김지현(성악, 88) 동문은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7.2~6,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주인공 토스카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쳐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페스티벌 여자주역상'을 수상하였다. 타고난 미성과 정제된 고음으로 새로운 '토스카'를 창조했다는 평을 받은 김 동문은 2010년에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서울경제신문대상'에 이어 2년 연속 큰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김지연 동문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추진단 활동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추진단 유물팀의 학예연구사 김지연(역사, 90) 동문은 2012년 4월 건립될 박물관 개관을 위해 막바지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박물관은 서울시의 선사부터 고대까지 유물이 소개될 예정이다.

윤순희 동문 영어뮤지컬 전문교재개발서 출간



윤순희(연극, 95) 동문은 영어뮤지컬 교육단체 '에듀컬'과 비영리단체인 '에듀컬 영어교육연구소'를 창설하였다. 윤 동문은

작년과 올해 하이원과 교과부가 주최하고 한림대가 주관하는 해외 현직교사 초청 영어캠프에서 영어뮤지컬 전담교육을 실시하였고, 초·중·등 교사들을 위한 영어뮤지컬 교사연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윤 동문은 영어뮤지컬 강사양성과정 및 공연제작 계획과 함께 영어뮤지컬 전문교재의 출간을 앞두고 있다.

박수경 동문 일본학술진흥재단 박사과정 특별연구 선정



모교 지리학과 신임교수인 박수경(지리, 96) 동문은 지난 3월 일본 츠크바 대학교 생명환경과학 연구과에서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for telemedicine networks in Korea and Japan'으로 이학박사학위를 수여하고, 같은 연구로 2009~11년에 걸쳐 일본학술진흥재단의 박사과정 특별 연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백순원 동문 여성연극제 <햄릿> 연출



백순원(연극, 98) 동문은 제7회 여성연극제 참가작인 <햄릿> (4.12~17, 선돌극장)의 연출을 맡았다. 이 공연에는 연극학과 이정국(96), 이성일(98), 최지영(03) 동문이 배우로 참가하였으며, 김희선(96), 박민수(96) 동문은 조명과 음향디자이너로 참여하였다.

임길호 동문 연극 <수상한 흥신소> 연출



극단 익스트림 플레이 대표 임길호(연극, 00) 동문이 대본을 쓰고, 연출한 <수상한 흥신소> (7.1~9.25, 상명아트홀 2관)는 창작 초연임에도 입소문을 통해 대학로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공연은 전이랑(01), 최지영(03), 강민혜(03), 김보람(05) 등 연극학과 동문이 배우로 참가하였으며, 유봉선(02), 김수호(02), 정윤석(06), 남유진(07) 동문이 제작PD, 홍보마케팅, 음향디자인, 조연출 및 음향오퍼를 각각 맡았다.

안국선 동문 Carlo Mosso

International Competition 3위 입상

안국선(피아노, 02) 동문은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세계적인 음악경연대회인 'Carlo Mosso International Competition'에서 3위에 입상하는 영

예를 안았다.

윤채우리 동문 신인 아나운서로 주목



현재 iSports TV에서 테니스 및 야구 등 각종 스포츠를 중계하고 있는 스포츠 아나운서 윤채우리(역사, 04) 동문은 최근 MBC 및 한국경제TV에서도 리포터로 활동하면서 촉망받는 신인 아나운서로 주목받고 있다.

총동문회 임원 이진아, 김정임, 김수연 동문 결혼

총동문회 국제교류 부위원장 이진아(영교, 88), 총무부위원장 김정임(사진, 90), 편집위원 김수연(연극, 97) 동문이 지난해 2월, 3월, 6월에 각각 화촉을 밝혔다.

윤인수 동문 Cafe 오픈

윤인수(작곡, 87) 동문은 지난 10월 5일 '세모와 네모 Rice Cafe'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1-8번지에 오픈하였다.

장혜진 동문 <나는 가수다> 출연



장혜진 동문(체육, 87)은 최근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MBC <나는 가수다>에 출연해 매번 색다른 무대와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현재 제2의 전성기를 맞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유서진 동문 <시크릿 가든> 출연

지난 해 1월에 종영한 SBS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유서진(연극, 95) 동문이 김주원(현빈 분)의 주치의 박지



현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 바 있다.

고수 동문 영화 <고지전> 출연 및 결혼



고수(영화, 99) 동문은 장훈 감독의 영화 <고지전>에서 주인공 김수혁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으며, 최근에는 정기훈 감독의 영화 <반창꼬>에도 캐스팅 되었다. 또한 고 동문은 3월 <반창꼬>의 크랭크인에 앞서 2월 17일 결혼식을 올렸다.

김재원 동문 <내 마음이 들리니> 출연



김재원(연극, 00) 동문은 MBC 드라마 <내 마음이 들리니>에서 청각장애를 숨기며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 차동주 역을 맡아 호평을 받았으며, 2011 MBC 드라마 대상에서 미니시리즈 부문 남자 우수상과 함께 인기상도 수상해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황선희 동문 <싸인>, <시티헌터>, <난폭한 로맨스> 출연



황선희(영화, 06) 동문은 지난해 SBS 드라마 <싸인>과 <시티헌터>에서 각각 강서연과 진세희 역을 맡아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최근 종영한 KBS 드라마 <난폭한 로맨스>에도 오수영 역으로 출연하였다.

[謹弔]홍희정(사진, 00) 동문의 명복을 빕니다.



2006년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으로 이주해 활발히 활동해 오던 홍희정 동문은 지난 7월 15일 간암 말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뜻있는 동문들이 마지막 뜻을 기리고자 한국으로 귀국하여 사진전을 개최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으나 7월 19일 장기파열로 인한 급작스런 수술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위급상황에서 홍희정 동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던 사진학과 동문들은 긴급히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 소식을 전했다. 불과 하루 만에 사진학과 동문들이 600만원을 모금하고, 홍희정 동문의 00학번 동기들도 500만원을 모금하는 등 총 1100만원이 전달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이튿날인 7월 20일 홍희정 동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사진학과 동문들의 정성이 담긴 모금액은 현지 장례 및 운구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그녀는 현재 자택 근처 사찰에서 편히 잠들어 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1년 임용고시 합격을 축하합니다.

인미영(국어교육 05)	함지혜(영어교육 05)	박민경(수학교육 03)
이지현(국어교육 06)	김미경(영어교육 05)	백창인(수학교육 03)
이은실(영어교육 03)	장옥선(영어교육 05)	신상현(수학교육 05)
김혜빈(영어교육 04)	백소원(영어교육 05)	노유래(수학교육 05)
김윤정(영어교육 04)	나정규(영어교육 07)	박수진(수학교육 05)
신고은(영어교육 04)	이옥희(영어교육 08)	황환웅(수학교육 05)
정하나(영어교육 05)	-교육대학원	임상희(불어교육 04)
	안미진(수학교육 01)	오현주(일어교육 99)
		김순미(일어교육 03)

주소를 알려주세요~

동문회보는 동문 여러분께서 내주시는 동문회비로 제작되어 3만부 이상 발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량의 회보가 반송돼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동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락처나 배송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될 때에는 꼭 총동문회 사무국(02-395-5203, 02-2287-52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동문이 빛나는 학교를 만듭니다

상명 동문 여러분, 우리 상명을 빛내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졸업생과 재학생 동문들이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펼치는 뛰어난 사회활동 혹은 괄목할만한 업적이 있을 경우, 비로소 상명의 이름이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 총동문회에서는 졸업생과 재학생 동문의 대외활동을 후원하고,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기획하여 실현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상명인을 배출하기 위한 총동문회의 꿈에 힘을 실어주시는 것과 동시에 당신의 모교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주세요.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동문회비 납부

납부방식: 무통장입금 - 연회비 1만원, 평생회비 2만원, 발전기금 5만원 이상
계좌번호: 하나은행 173-910088-61307
예금주: 서명원(상명총동문회)

2. 장학기금 납부

납부방식: 무통장입금 - 10만원 이상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45-388485
예금주: 서명원(상명총동문회)

* 입금하실 때 꼭 성함, 학과, 학번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서명원 불교 78)

장학기금을 기탁해주신 모든 동문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장학기금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나, 뜻을 함께 하고 싶으신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총동문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95-5203, 02-2287-5250

2011년 총동문회 장학기금 기부자 명단

2000만원	200만원	50만원
김종희(체교,74)	김두련(체교,70)	천행엽(영교,68), 고해숙(미교,74)
1000만원	이지행(영문,81)	30만원
유미선(불교,80)	150만원	김원경(피아노,79)
김복순(경영대학원,04)	오의경(문정,88)	20만원
음악대학동문회	100만원	이승하(사진,91), 주소형(연극,95)
500만원	두경자(가교,66), 정재량(미교,68)	10만원
황정주(체교,76)	김순재(국교,72), 이인숙(가교,73)	노형미(일교,79), 손강은(성악,81)
서명원(불교,78)	김미형(국교,78), 정연진(불교,78)	이정옥(불문,86), 서은영(의디,00)
300만원	홍기선(문정,80), 조금주(교육,81)	우리영(지리,00)
정현희(미술,83)	김일립(지리,84), 박주은(영교,84)	
	이정형(행정,84), 김훈희(한조,89)	
	공예과 동문회	



천 행 업 동문 인터뷰

— 취재/글 김동근, 박선규

세계 최초 여성 교육원장 출신!

러시아 정부로부터 “세계 최고”란 찬사를 들은 교육전문가
이제 정년퇴임으로 39년 교직 인생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자랑스러운 상명인

천행업(영교, 68) 동문은 2001년 7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러시아 주 한국 대사관 로스토프나도누 한국교육원장을 역임하였고, 당시 영어와 러시아어 시험선발 과정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세계 최초의 여성교육원장이라는 타이틀로 한국과 러시아를 들쭉이게 만든 인물이기도 하다. 천 동문은 인터뷰 당시 수도여고 교장으로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었으며, 모교 총동문회의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Q. 퇴임을 앞두고 느끼시는 감회는?

A. 2011년 8월 퇴임하기까지 근무기간이 총 39년 6개월입니다. 대학졸업하고 삼척에 있는 원덕고등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이로 시작했고, 이후 서울에 진출을 해서 쪽 교직생활을 했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섭섭하고 조금 쓸쓸한 기분이 들기도 하네요. 하지만 주위사람들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했고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수도여고가 제 모교인데 모교에서 교장으로서는 역할을 다하고 퇴임해서 참으로 행복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모교인 수도여고 교장으로 일하시면서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A. 처음에는 모교 출신 교장으로서는 학교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주저했지만 용기를 내서 마지막으

로 모교에 온 정성과 힘을 다 쏟아 보자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퇴임할 즈음 돌아보니 학교의 모든 모습이 놀랄 정도로 성장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39년 교직에 대한 보람은?

A. 교직에 대한 보람으로는 학생들 개인의 상담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고 싶어 하고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학교가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준 일입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이나 수능성적으로 맞춰서 가는 대학이 아닌 자신의 꿈을 찾아서 대학에 들어가 신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것이 가장 뿌듯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여고가 재임 당시 학교우수경영 우수상을 받은 것도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입니다.

Q.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교육 이념, 교육에 대한 의견은?

A. 수도여고가 그토록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인성교육이 밑바탕 되었기 때

문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효(孝)를 바탕으로 하는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고, 이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을 지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때의 성적으로 무턱대고 대학에 진학하여 후회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상명 동문으로써 상명 후배들에게 한 말씀해주세요.

A. 우리 상명인은 전문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어교사로서 전문인인 것처럼 전문인이 되도록 땀 흘려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고 그 일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난다고 봅니다. 어디에서건 자랑스러운 상명인, 전문성 있는 상명후배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정 현 동문 인터뷰

— 취재/글 강영미, 김수연

스페셜 올림픽은 함께하는 도전!

우리는 2013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올림픽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정현(행정, 84) 동문은 현재 2013년 개최될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홍보마케팅 사업단을 이끄는 중책을 맡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또한 경기문화재단 협력마케팅 사업단장, 네이버 해피빈재단 이사, (사) DMZ문화포럼의 이사까지 겸직하고 있어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하지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도 ‘반드시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하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여전히 도약 중이다.

Q. 최근 주력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제가 요즘 가장 주력하는 일은 2013년 평창에서 열리는 스페셜올림픽 알리기와 그 기금마련을 위한 기업 후원유치사업입니다. 스페셜올림픽(www.2013sopoc.org)은 전 세계 129개 국가에서 약 5천명의 지적장애인 선수들이 우리나라 평창에서 7개 종목에 걸쳐 참가하는 세계적인 스포츠행사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개최되기로 확정되었지만 그보다 앞서 5년 전에 열리는 이 행사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열립니다. 또한 아와 별도로

경기문화재단에서 9월 27일 개관을 앞둔 동양최대규모의 어린이박물관(www.ggcf.or.kr)의 뮤지엄 샵, 어린이도서관 등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후원유치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겠지만 프로젝트 컨설턴트로서의 제 역할이 마음에 들고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Q.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페셜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2013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선수와 가족, 인솔자, 외신기자들의 수가 1만 명을 넘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기다리며 또 돕고 사는지 그 모습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위에서는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3천명 친구들을 찾습니다’란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로 네이버 해피빈재단과 함께 1:1 매칭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이 대회에 참가하는 지적장애인 선수의 후원인(친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친구의 경기를 응원하고 한국을 알리는 문화전령사로서의 역할도 가능합니다. 이 해피빈 캠페인에 동문여러분들도 참가해주세요.

Q. 과거 경기 관광공사 본부장 시절 체험관광을 모티브로 한 ‘자선과 나눔’ 사업을 통해 전국 다문화 가정 어린이의 체험을 지원하는 ‘경기아이누리 캠페인’을 진행하신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 2009~2010년에 걸쳐 경기관광공사의 본부장을 지냈고 지금은 경기문화재단 협력마케팅사업단의 단장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 본부장일 때는 ‘경기아이누리’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경기도로 초청, 교육과 엔터테인먼트가 복합된 캠페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약 3800명의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특별한 경험을 했고 이를 위한 모든 자금과 시설지원을 위한 후원유치를 완성했습니다.

Q.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A. 인간관계입니다. 가정, 사회, 학교, 국가 어떤 조직에 가셔도 빛나는 인간관계는 그 사람의 최고의 자산이며 결코 값으로 평가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인간관계는 물론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Q. 좌우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바로, 오늘입니다. 언제나 항상, 오늘을 잘 살면 내일 오는 오늘은 정말 멋집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고 즐기면서 일하는 삶을 살자’는 것이 제 좌우명입니다.

Q. 가정과 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비결은 무엇입니까?

A. 잡기는 커녕 아직도 양쪽을 분주하게 붙잡으려고 뛰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늦었던 터에 친구들에 비해 아이들이 많이 어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가정일도 중요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바깥일에 올인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있어서 비로소 불완전한 내가 완성되고 일이 있어서 부족한 엄마가 멋져 보이기도 합니다.

Q. 동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위로 선배님들께는 우리 후배들 취직 많이 시켜주시라 부탁드리고 싶고 아래 후배님들께는 준비하고 세상에 나오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전하지도 않은 채 열매감에 사로잡혀서 정말 인생에서 소중한 목표의식과 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번도 뒤를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지나온 어제는 제가 맞닥뜨려야 할 수많은 오늘에 대해 어떠한 손을 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분에게도 그런 ‘특별한 오늘’들이 바로 눈 앞에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방현주 동문 인터뷰

— 취재/글 주소형, 서은영

**“나만의 등대를 세워놓고 가다보면
일년 뒤 십년 뒤에는 바다의 흐름도 바뀔 것이다”**

방현주 동문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폐막식 중계와 육상선수 류시양, 영화배우 청룡(성룡), 장쯔이 등의 만남으로 큰 화제를 모았으며, 2011년 상명언론인상을 수상하고 받은 상금 전액을 다문화 가정에 기부하기도 하였다. 인터뷰 내내 밝은 에너지가 넘쳤던 방 동문과의 대화를 통해 중국과의 인연, 언론인으로서의 마음가짐, 삶을 대하는 긍정적인 태도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중국과의 인연

“어렸을 때 펜팔이 유행을 했었는데 다른 아이들은 영어권을 선호한데 비해 저는 수교 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친구를 펜팔 친구로 사귀었어요. 그때부터 중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아마도 그러한 인연으로 중어중문학과를 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 입학해서는 사실 적응을 못하는 학생이었어요. 뒷자리에 앉아서 창밖만 보곤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김정일 교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

았는데 ‘너는 빛나는 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수님의 그 한마디가 제 삶의 빛깔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 이후로 자신감도 생기고 학교생활도 열심히 해서 1학년 2학기부터는 한 번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게 됐죠. 그렇게 어릴 적부터 중국을 접해서 그런지 중국에 대한 선입견이 없었어요. 중국인 친구들에게도 그저 진심으로 대하려 했죠. 사회고위층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인연을 맺으면 오랫동안 이어지는 편이에요.”

그렇게 진심이 통해서일까. 베이징 올림픽 때 중국 정부차원에서 일체 인터뷰가 허락되지 않았던 육상 스타 류시양 선수를 6개월 동안 섭외해 해외 언론 중 유일하게 단독 인터뷰에 성공했고, 또 그가 기권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 감독과 류시양 선수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이 인연들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한다.

소외계층을 향한 관심

방현주 동문은 2011년 상명언론인상을 수상하며 받은 상금을 전액 다문화 가정에 기부하기도 했다.

“언론인은 사회로부터 부여된 힘이 주어지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힘은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더 큰 힘들을 견제하고, 소외계층을 보호하는데 쓰여야 해요. 단지 피부색과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차별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지난 여름 휴가도 방현주 동문은 흑진주 3남매와 함께 했다고 한다. 가나 출신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3남매의 안타까운 사연을 다큐멘터리를 통해 알게 되었고, 남편과 수소문해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있다. 그녀는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탈북자에 대한 관심도 커서 탈북자 학교인 여명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친 적도 있고 탈북 청소년을 위한 후원행사에도 적극적이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

인터뷰 내내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보여서 평소엔 체력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았는데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되었다.

“원래부터 에너지가 넘치는 편이라 이 점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갑상선암 수술 후 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수술 후 제 인생이 훨씬 정돈되고 여유로워졌어요. 국수를 끓일 때도 중간에 찬물을 한번 부어줘야 속까지 잘 익듯이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이에요. 남들은 수술하고 힘들지 않았냐고 물어보지만 이유 없는 고난은 없는 것 같아요.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갑상선 암이 제 인생의 로또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앞이 안보이고 캄캄한 순간이 바로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방현주 동문은 그래서 앞으로 자신이 걷게 될 또 다른 길이 설레고 기대된다고 한다. 현재 그녀의 핸드폰 배경화면은 오프라 윈프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여자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울 때 찍은 사진이다. 방현주 동문은 매일 아침 이 사진과 함께 시작한다. 인생의 항해에서 때론 길이 보이지 않아 잘못 갈 수도 있지만 어딘가 있을 나만의 등대를 보고 간다면 결국 바라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또 항해를 멈추지만 않는다면 일년 뒤, 십년 뒤에는 바다의 흐름이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믿는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현재의 방현주 동문보다 더 멋진 미래의 그녀를 기대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동문들의 모교 교수 임용을 축하합니다

2011



김정연(경영, 88)
소속학과: 경영학전공



최은정(경영, 89)
소속학과: 경영학부



정순석(음악, 81)
소속학과: 관현악과



이영숙(음악, 88)
소속학과: 성악과



김지현(음악, 88)
소속학과: 성악과



김은경(미교, 80)
소속학과: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성윤아(일교, 89)
소속학과: 교육대학원 일본어교육



정유선(중문, 90)
소속학과: 교육대학원 중국어교육



이소미(체육, 92)
소속학과: 교육대학원 체육교육



류근혜(미교, 76)
소속학과: 연극학과



방경란(공예, 83)
소속학과: 디자인학부



이동수(성악, 98)
소속학과: 문화예술경영

2012



박수경(지리, 96)
소속학과: 지리학과



이의철(소웨, 96)
소속학과: 컴퓨터 과학전공



이정아(공예, 88)
소속학과: 실용예술학과



주경임(공예, 92)
소속학과: 실용예술학과



박주은(영교, 84)
소속학과: 통번역학전공



신윤진(시디, 85)
소속학과: 시각디자인 전공



김희균(요디, 93)
소속학과: 세라믹 디자인학과



박진원(무디, 96)
소속학과: 무대영상 분장전공

2011 상명언론인의 밤 개최



지난 2월 10일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 홀에서 모교 출신 언론인을 위한 행사인 '2011 상명언론인의 밤'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 행사는 모교 출신 언론인들이 모여 언론계의 현안과 동문으로서 학교 홍보 방안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상명언론인상' 시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수상자는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방현주 MBC아나운서와 문화예술대학원에서 비주얼저널리즘을 전공한 연합뉴스 김호천 기자가 선정되었다.

상명학원 설립자 흉상 제막식



지난해 모교에서는 대학 설립자인 계당 배상명 선생의 25주기를 맞아 배상명 선생의 흉상 제막식을 가졌다. 제막식 행사는 오전 9시 계당아트센터 계당홀에서 서명원 총동문회장과 총장, 이준방 재단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설립자 흉상 제작은 우리 대학 미술학과 조소전공을 졸업하고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박민정 동문이 제작한 것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 협약 체결

모교는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 파트너십협약을 체결하였다. 대한적십자사



유종하 총재, 김인호 대전·충남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날 협약의 주요 활동으로는 'RCY활동', '긴급구호활동', '건전 기부문화활동', '사랑의 헌혈운동 및 생명보호운동' 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모교는 적십자 특별 회비를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하였고,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적십자회원 유공장 금장을 모교에 수여하였다.

산업디자인전공 학생들이 IF Concept Design Award 수상



모교 산업디자인전공 학생들이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인 IF Concept Design Award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IF(International Forum)에서 주최하는 공모전 중 하나인 Concept Award는 전세계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세계적인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으로, 총 8,000여 개의 작품 중 100여개의 작품만이 Award Winner의 자격을 얻게 된다.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재학생 동문은 산업디자인전공 장준영, 허지석, 김재욱, 박슬기, 김명규, 조철희, 김강희 학생으로 총 3개의 작품이 수상을 했다. 모교 산업디자인전공에서는 IF에서 주최하는 'IF Lebensraum 2010'에서 2위를 수상한 바가 있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이번 수상으로 IF에서 전 세계 수상자의 출신학교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IF University 랭킹에서 모교가 전년도 28위에서 5위로 상승되어 상명대학교 디

자인대학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모교 국어문화원 한국어 교실 개강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 모교 국어문화원(원장 구현정-국교, 77)이 올해 봄 학기와 가을 학기 두 번에 걸쳐 '결혼이민자 한국어 소그룹 교육'을 개강했다. 장소는 천안캠퍼스 한누리관으로 모교의 국어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해 지원하는 전국 18개 기관 가운데 충청남도에 하나 뿐인 국어문화원이다. 그동안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반, 한국어 소그룹 교육, 다문화가정 쌍방향 언어·문화 교육, 다문화가정 자녀 글쓰기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결혼이민자들과 그 가족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것을 도와왔다.

시각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진교실



지난 5월 14일 영상미디어 연구소에서는 대학로 상명대 예술디자인센터 갤러리에서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사진교실, '2011 마음으로 보는 세상, 마음으로 보는 서울'의 출범식을 가졌다. 모교와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로알로터리클럽에서 후원하고 (주)리서치21이 협찬하는 이 행사는 11명의 시각장애인이 6개월간 사진교

실을 통해 카메라 및 사진촬영에 대한 교육을 받고 사진영상미디어전공 학생들이 한명씩 멘토가 되어 도움을 주었다. 이들이 직접 촬영한 작품들은 선별과정을 거쳐 지난 11월 8일에서부터 13일까지 대학로 상명대 예술디자인센터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역사콘텐츠학과 제4회 상명 역사소재 UCC 공모전 개최

역사콘텐츠학과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제4회 상명 역사소재 UCC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역사학과 콘텐츠 제작에 관심을 가진 전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상명대학교를 홍보하고 역사에 관심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강태범 신임총장 취임



지난 9월 20일 모교의 제 9대 총장으로 강태범(화학과) 교수가 임명되었으며, 취임식은 21일 오전 10시 계당아트센터 콘서홀에서 거행되었다. 신임 강태범 총장은 경희대학교에서 공학 학사와 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상명대학교 기획부총장, 부총장, 한국 막학회(The Membrane Society of Korea) 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의 총장 직무대행을 수행하였으며, 2005년 기획부총장 시절 대학종합평가를 총괄해 최우수대학 평가를 받은 바 있어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과 동문들로부터 큰 기대와 지지를 받고 있다.

2011 정기총회 화보



김혜정동문 총동문회 홍보대사 위촉

2011 사업보고

상명농구단 지원금 모금

재선된 회장님과 케익커팅

행운권당첨 후 즐거워하는모습

행운권추첨

성악과 동문공연